

철도건설법 분리발주 조항의 해석

□ 시행 예정 철도건설법 개정안 내용(2단 보기)

철도건설법 '13. 8. 6. 일부개정, '14. 2. 7 시행	철도건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18호, 현행 규정]
제18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② 사업시행자는 철도 역 시설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發注)할 때 건축·궤도·전기·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는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③ (생략)	제20조(공사 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을 이용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하면 하자 책임의 구분이 불명확하게 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3. 국방·국가안보 등과 관련되는 공사로서 기밀유지를 위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 분리발주 조항의 해석

- 철도건설법 제18조 분리발주 조항의 내용 중 본문에 ‘발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단서조항으로 분리발주 하기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만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으므로, 원칙은 분리 발주하는 것이 되고 ‘발주할 수 있다’는 ‘발주 하여야 한다’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
- 국토교통부 박재순 법무담당관은 철도건설법 제18조 분리발주 조항 내용 중 ‘할 수 있다’에 대한 해석은, 단서조항의 내용 때문에 ‘하여야 한다’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므로 국토부에서는 건축·궤도·전기·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 등 5가지는 분리발주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 통합발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였음.